산후조리원 이용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

정인숙[1] · 김현경[1] · 강미옥[2]

부산대학교 간호대학[1] · 울산여고[2]

1. 연구목적

본 연구는 자기효능증진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 산후조리원 이용초산모의 양육자신감과 양육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.

2. 연구방법

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한 실험연구로 독립변수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며 종속변수는 양육자신감과 양육행위이다. 연구 대상자는 울산시에 소재한 D병원과 P병원내 산후조리원 이용초산모로 대조군 14명, 실험군 15명으로 총 29명이였고, 연구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이었다. 산후조리원 입소 2일째 되는 날 양육자신감과 양육행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대조군은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을, 실험군은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전략(성취경험, 대리경험, 언어적 설득)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, 구체적으로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, 비디오 시청 및 모형을 이용한 시범이었다. 사후조사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입소 6일째 되는 날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. 양육자신감은 자가보고형 설문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고, 양육행위는 비디오 촬영결과를 체크리스트에 기입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/PC 12.0 program을 이용하여 x^2 test와, t-test,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.

3. 연구결과

실험군의 양육자신감 점수는 중재 전 평균 47.2점에서 중재 후 63.5점으로 증가하였고, 대조군은 중재 전 평균 56.6점에서 중재 후 63.2점으로 증가하였다. 사전 평균점수가 대조군에서 더 높았으나 중재 후 대조군에서보다 실험군에서 더 높아졌으며 두 집단의 중재 전·후 양육자신감 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(F=3.23, p= .042), 세부행위별로 보았을 때 '구토간호'에서 두 집단간에 양육자신감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

실험군에서 중재 전 양육행위점수가 평균 38.6점에서 중재 후 평균 75.7점으로 증가한 반면, 대조군은 평균 35.6점에서 평균 57.6점으로 증가하였다. 두 집단의 중재 전·후 양육행위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(F=18.00, p< .0001). 세부행위별로 보았을 때 '목욕(F=10.59, p= .002)', '배꼽간호'(F=5.93, p= .011), '트림'(F=3.43, p= .038), '기저귀갈기'(F=13.88, p< .0001), '체온측정'(F=22.43, p< .0001), '구토간호'(F=4.98, p= .017)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

4. 결론 및 제언

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은 초산모의 양육자신감과 양육행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앞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이 산후조리원 또는 신생아실에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발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본 연구는 중재후 5일째 측정하였는데 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시기를 변경한 추가연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한다.